

Styrene, 가격 폭락세 “끝없다”

FOB Korea 640-660달러로 50달러 하락 ... 미국가격도 폭락

Styrene 가격이 4월19일 기준 FOB Korea 톤당 640-660달러로 톤당 50달러 폭락했다.

아시아 Styrene 시장은 가격급등에 대한 심리적인 반발 및 PS(Polystyrene) 수요 약세에 따라 FOB Korea 기준 최고 75달러 폭락했다.

Styrene 가격은 3월22일 FOB Korea 기준 톤당 670달러에서 29일 855달러로 폭등했으나 4월5일 725달러, 4월12일 700달러, 4월19일 650달러로 폭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다만, 국제유가가 최근 들어 강세를 지속하고 있고, Benzene 가격이 4월19일 FOB Korea 기준 톤당 331달러로 21달러 상승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나프타 가격은 C&F Japan 기준 톤당 246달러로 3-4월 내내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Styrene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 강세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무역상들은 Styrene 2000톤을 FOB Korea 기준 톤당 630달러에 구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5월 상순 운송물량 2000톤을 FOB Korea 660달러에 구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중국기업들은 60일 신용 조건으로 CFR 630달러 또는 현지구매 625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 내수가격은 ex-Tank Shanghai 기준 6200-6300원을 형성하고 있다.

일본의 Idemitsu상사 및 Mitsubishi상사는 중국 및 타이완 수요기업들에게 60일 신용 조건으로 CFR 톤당 680-690달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Styrene 가격도 Spot가 파운드당 28.50-30.00센트로 폭락했다.

미국가격은 3월29일 US Gulf 기준 톤당 683달러에서 4월5일 871달러로 폭등했으나 4월12일 838달러, 4월19일 645달러로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시장의 약세는 Styrene 플랜트 트러블에 따른 가수요가 잠잠해지고 가격폭등에 따른 반발심리로 수요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에서 유럽으로 운송되는 Styrene 10만-12만톤 가격으로 FOB US Gulf 기준 파운드당 28.5-29.5센트가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Styrene 공급기업들은 4-5월 내수가격을 파운드당 4센트 인상할 방침이나 수요기업들의 반발이 거세 성공할 수 있을 지 미지수이다.

일부에서는 5-8센트 인상을 거론하고 있으며, 또 다른 일부에서는 4월에 이어 5월에 파운드당 4센트를 추가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Chemical Daily News 2002/ 04/ 23 >